

2015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제2외국어/한문)

한문 I 정답

1	③	2	②	3	④	4	①	5	④
6	①	7	⑤	8	③	9	③	10	③
11	②	12	②	13	⑤	14	⑤	15	④
16	⑤	17	②	18	②	19	①	20	⑤
21	②	22	②	23	④	24	①	25	⑤
26	⑤	27	①	28	①	29	③	30	④

해설

1. [출제의도] 한자의 특징을 안다.

‘거리’를 뜻하는 ‘街’를 찾는다.

2. [출제의도] 한자의 특징을 안다.

가로 열쇠는 ‘막상막하(莫上莫下)’이고, 세로 열쇠는 ‘금상첨화(錦上添花)’이다. ‘上’과 ‘下’는 지사자이다.

3. [출제의도] 한자의 특징을 안다.

㉠ ‘吟’ 읊음(음), ㉡ ‘姓’ 성씨(성)

4. [출제의도] 한자의 특징을 안다

ㄱ. 알다, ㄴ. 이별하다, ㄷ. 모이다-흠여지다, ㄹ. 새것-현것

5. [출제의도] 한자의 특징을 안다.

주어진 조건에 맞는 한자는 ‘될(化)’자이다.

6. [출제의도] 어휘와 의미를 안다.

동음이의어를 구분하는 문항이다. 연기(連記): 둘 이상의 것을 나란히 잇대어 적음. 연기(緣起): 모든 현상이 생기 소멸하는 법칙. 연기(煙氣): 물건이 불에 탈 때에 나는 검거나 뿌연 기체.

7. [출제의도] 어휘와 의미를 안다.

① 천리안: 먼 데서 일어난 일을 직감적으로 감지하는 능력. ② 백안시: 남을 업신여기거나 냉대하여 흘겨 봄. ③ 사이비: 겉은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 ④ 홍일점: 많은 남자 사이에 끼어 있는 한 사람의 여자.

8. [출제의도] 어휘와 의미를 안다.

예절(禮節), 보건(保健), 봉사(奉仕), 보호(保護), 보류(保留)

9. [출제의도] 어휘와 의미를 안다.

여덟 개의 글자 중 네 자를 골라서 성어를 완성하고, 그 속뜻을 찾아내는 문항이다.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사자성어는 ‘일구이언’이다.

10. [출제의도] 어휘와 의미를 안다.

‘주마간산’은 말을 타고 달리며 산천을 구경한다는 뜻으로, 자세히 살피지 않고 대충 보고 지나감을 이르는 말이다.

11. [출제의도] 한자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한다.

한국, 중국, 일본의 한자 발음은 모두 다르며, 표기도 다른 경우가 있다. 또한 한자는 같지만 한·중·일이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휘도 있는데, 이를 통해 상호 간의 문화를 이해하는 문항이다. 중국어에서 ‘지남’은 한국어의 ‘안내’에 해당한다.

12. [출제의도] 어휘와 의미를 안다.

‘견리사’는 ‘눈앞에 이익이 보일 때, 먼저 의리를 생각한다’는 뜻이다.

13. [출제의도] 한시를 이해하고 감상한다.

제시된 그림의 내용은 ⑤ ‘다른 천지가 있어 인간 세상이 아니라네.’와 관계가 있다. ① 객사에 푸릇푸릇 버들빛이 새롭네. ② 맑은 강 한 굽이가 마을을 안고 흐르네. ③ 문 앞 돌길은 이미 모래가 되었겠지. ④ 꽃은 맑은 향기 내뿜고 달빛은 꽃그늘에 지네.

14. [출제의도] 단문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귀에 대고 하는 말은 듣지 말고, 누설을 경계하는 이야기는 말하지 마라.

제시된 지문은 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뜻의 한문 속담과 관계있다.

15. [출제의도] 단문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④ 여가가 있기를 기다린 뒤에 책을 읽는다면 반드시 책을 읽을 때가 없을 것이다.

16. [출제의도] 단문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⑤ 잘 가르치는 사람은 사람에 따라 가르치고, 그 사람이 능하지 못한 바를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 ① 한 가지 일을 겪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② 뜻을 세우는 것이 높은 사람은 성취하는 것이 반드시 원대하다. ③ 사랑하더라도 그 악함을 알고, 미워하더라도 그 선함을 알라. ④ 남의 잘못은 마땅히 용서하되 나에게 잘못이 있으면 용서하지 말라.

[17 ~ 18]

옛 풍속에 어린이들이 새끼줄을 가지고 그 양 끝을 잡고 넘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이에 천여 번에 이른다. 어떤 이는 이르기를, 조중봉 선생이 아동들에게 이 놀이를 하게 하여 다리 힘을 튼튼하게 하고 각기를 없앴다고 한다. 그것을 이름하여 줄넘기라고 한다.

17.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②의 ‘至’는 ‘~에 이르다’의 뜻으로 풀이되고, 나머지는 모두 ‘지극하다’로 풀이된다.

18.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19 ~ 20]

백 번 싸워 백 번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요, 싸우지 않고 남의 군사를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상대를 알고 자기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상대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상대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알지 못하면 매번 싸울 때마다 반드시 패한다.

19. [출제의도] 단어의 형성을 안다.

①은 술목 관계의 단어이다.

20.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21 ~ 22]

초나라 사람 중에 강을 건너는 자가 있었는데, 그의 칼이 배 안으로부터 강으로 떨어졌다. 황급히 그 배에 새기고 말하기를, “이곳이 내 칼이 그로부터 떨어진 곳이다.”라고 하고, 배가 멈추자 그 새긴 곳을 따라 물에 들어가 그것을 찾았다. 배는 이미 지나갔으나 같은 가지 않았으니, 칼을 구하는 것이 이와 같다면 또한 미혹되다 하지 않겠는가?

21.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산문을 읽고 문맥에 맞게 글을 배열한다.

22. [출제의도] 산문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우언의 특징은 고사가 있다는 것과, 감을 말하면서 읊에 뜻을 둔다는 것이다. 각주구검은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뜻한다.

[23 ~ 25]

태사공이 이르기를 “권세와 이익으로써 만난 사람은 권세와 이익이 다하면 사귀이 멀어진다.”라고 하였으니 그대 또한 세상의 도도한 흐름 가운데에 있는 한 사람인데 어찌 도도한 권세와 이익 밖으로 초연히 자신을 빼내어 권세와 이익으로써 나를 보지 않는가? 태사공의 말이 틀린 것인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해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 것을 안다.”라고 하셨는데, 소나무·잣나무는 사철을 일관하여 시들지 않는다.

23.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은 ‘소원하다’는 뜻이다.

24.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25. [출제의도] 산문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권세와 이익을 좇아 사람들이 교분을 맺는다.’는 태사공이 말을 인용한 후, 왜 나의 제자 이상적은 태사공의 말처럼 권세와 이익을 따르지 않느냐는 강한 반문을 통해 혹독한 현실에 처한 자신을 변함없이 대하는 이상적의 절의를 높이 사고 있다.

[26 ~ 27]

여산참에 사람은 없고 곡식이 들에 쌓여 있으니 종자가 또 가져다 말을 먹였다. 이공수가 곡식 한 단의 값이 베로는 몇 자인지 물어서 그 말대로 하고, 배 양 끝에 글을 써서 곡식이 쌓인 곳 가운데 두었다. 종자가 말하길, “다른 사람이 반드시 가져갈 것이니 어찌 이익이 있겠습니까? 값을 치르지 않음만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이공수가 말하였다. “나도 본디 그것을 안다.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

26.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은 ‘이(것)’이라는 의미이다.

27.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이공수는 작은 것이라도 함부로 주고받지 않는 정직한 성품을 갖고 있었고,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강하고 의연하여 형세에 어려움이 없었던 인물이다.

[28 ~ 30]

(가) 어젯밤 송당에 비가 내려./ 배갯머리 서편에선 시냇물 소리./ 새벽녘 뜰의 나무를 보니./ 자던 새는 둥지 아직 뜨지 않았네.
(나) 청명 때에 비는 부슬부슬./ 길 가는 나그네 외로움에 쓰러질 듯./ 술집은 어느 곳에 있느냐 물으니./ 목동이 저 멀리 살구꽃 핀 마을 가리키네.

28. [출제의도] 한시를 읽고 풀이한다.

㉠은 ‘어젯밤’으로 풀이된다.

29. [출제의도] 한시를 이해하고 감상한다.

(가)의 운자는 ‘西, 樓’이다.

30. [출제의도] 한시를 이해하고 감상한다.

(가) 시의 기·승·구·결은 시인이 살고 있는 산장에 지난밤 내내 비가 내려, 물이 불어 시냇물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말하였다, 전·결구는 밤새 잠들지 못하던 시인이 새벽에 뜰에 나와 보니 새들도 아직 둥지에서

웅크리고 있었다는 풍경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
(나) 시는 외로운 나그네가 청명의 절기를 맞아 고향
에 대한 그리움과 서글픔이 사무치는 심정을 ‘살구꽃
핀 마을’이라는 따뜻한 풍경 속에 담아냈다.